

## 제 목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에 대한 윌리엄스 뉴욕연준 총재의 견해

◆ 윌리엄스 뉴욕연준 총재\*는 지난 1.10일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에 대한 연설문\*\*을 통해 연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

\* 뉴욕연준 총재는 연준이사(7명)와 더불어 상시 FOMC 투표권을 가짐

\*\* 브롱스 경제개발공사 및 BICNY가 주최한 2024년 지역경제 전망(1.10일)에서의 연설문을 홈페이지에 게시

○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%를 향해 움직인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제약적 정책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

□ (정책목표 관련 지표 동향) 연준 정책목표(완전고용, 물가안정) 관련 지표를 보면 최근 고용은 호조세를, 물가상승률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

○ (고용) '23년중 신규 취업자수(연말대비)가 2.9백만명 증가\*하였으며, 실업률은 최근 2년 동안 4%이하 수준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임\*\*

\* 이는 팬데믹 이전 증가폭(15~19년중 연평균 +2.3백만명)을 상회하는 수준임

\*\* 핵심연령(25~54세)의 인구대비 고용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('19.12월 80.4% → '20.4월 69.6% → '23.12월 80.4%)

— 퇴직률(퇴직자수/취업자수)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으며('19.12월 2.3% → '22.4월 3.0% → '23.11월 2.2%)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지만 구인율도 하락('19.12월 4.2% → '21.12월 7.3% → '23.11월 5.3%)

— 아울러 경제활동참가율('20.4월 60.2% → '23.12월 62.5%)이 높아지고 이민 증가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노동공급이 확대

— 다만 추가적인 노동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어 노동시장 불균형이 보다 완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수요가 조금 더 둔화될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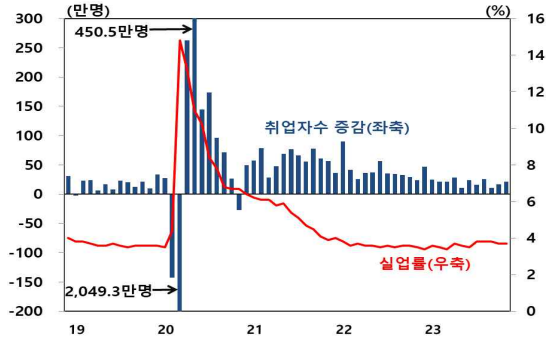
○ (물가) PCE 물가상승률은 '22.6월 7.1%로 최근 40년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'23.11월 2.6%로 낮아짐

— 상품특성별로 보면, 원자재 가격은 수급개선 등으로 하락하여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했으며, 근원 상품 가격 상승률은 수요 감소와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 등으로 0%대로 하락

작성자 : 구자천 차장, 엄태균 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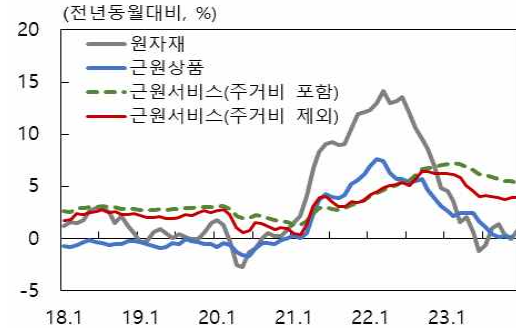
— 근원 서비스도 임대료 하락에 따른 주거 관련 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하락했으며, 주거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짐

**고용 및 실업률**



자료: BLS, BEA

**주요 물가 상승률**



자료: BLS, BEA

- (인플레이션 평가) 미래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세 변수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며,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물가안정 목표까지는 **여전히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음** (still a ways from our price stability goal)
  -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FOMC 목표수준(2%)에 잘 안착되어 있으며, 중기 및 단기(1년) 기대인플레이션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
  - 뉴욕연준의 다변량 핵심 추세(MCT, Multivariate Core Trend) 인플레이션도 크게 낮아지는 등 개선된 모습('22.6월 5.5% → '23.11월 2.3%)
  - 임금상승률(뉴욕 연준의 core wage inflation 기준)도 크게 하락('21.12월 7% → '23.11월 4.5%)하면서 노동시장 역시 균형을 되찾고 있음
- (경제전망) 제약적 통화정책의 누적효과 등을 감안하면 금년도 GDP 성장률은 1.25%로 둔화되고 실업률은 4%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, PCE 물가도 금년말 2.25%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
- (통화정책) 현재의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연준의 장기물가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, 동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려면 **한동안(for some time) 동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**가 있으며,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%를 향해 움직인다는 **확신**이 있을 때만 **제약적 정책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**할 것임(it will only be appropriate to dial back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)

- 다만, 전망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통화정책 결정시 매번의 회의마다 입수되는 데이터 등(데이터의 총체성, 전망의 변화, 리스크의 균형)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목표달성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
-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, 연준은 준비금 잔액이 충분 수준(ample reserves)에 부합하는 수준을 다소 상회하게 되면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를 줄이다가 중단할 계획이나 **현재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함**(So far, we don't seem to be close to that point)
- **(결론)** 지난 2년간 연준이 취한 강력한 조치들은 의도한 대로 작용하여 경제균형 회복과 인플레이션 안정에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, **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**(our work is not done)
- 앞으로도 연준은 2% 물가목표 달성과 우리 경제의 강력한 토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

**(원문)**

☞ 뉴욕연준 보도자료(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Press center) : <https://www.newyorkfed.org/newsevents/speeches/2024/wil240110>